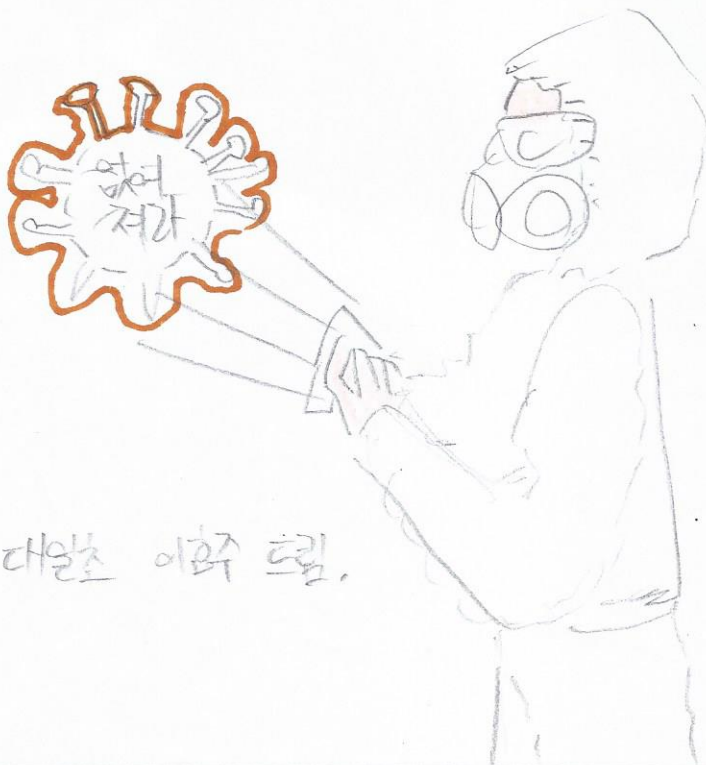


- 받는 사람: 코로나 방역을 위해 힘쓰시는 분들

- 안녕하세요 전 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호주'입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별로  
못가고 있지만 슈퍼라도 가는 것은 코로나와 싸우는 의료진 분들,  
항상 매일 아침 코로나 현장을 브리핑 해주시는 분들, 코로나를 없  
애기 위해 백신 연구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 등등 덕에 코로나 상  
황 속에서 슈퍼라도 실 수 있거 같아요. :)

더위에서도 방역복 쓰시면 관찮은데요.. 저는 뉴스에서 의  
료진 분들 코로나와의 전쟁 때문에 온몸에 방역복, 방어진들 등  
으로 흉터가 생긴 것 보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백신 발  
리 만들려고 노력도 하시고 계시는데 "왜 백신 안나와요?", "일 잘  
하든가 못하?" 등 이야기 들으시면 가슴 아프시겠어요.. 저라면 울거  
같아요,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의료진, 항상 길거리 소독 등 하는  
분들이라면 잘 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코로나와 싸우는  
대면 전쟁에 방패만 들고는 것과 같아요, 방역과 싸우는  
분들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5천만명 다 감염 됐을거예요.  
코로나와 싸우는 한분 한분 다 응원해요, 항상 힘써주세요 감  
사합니다, 오늘도 힘 내세요!



- 대일초 이호주 드림.